



[소비동향] 英, 온라인 유제품 판매량 급증

- 온라인 소매판매 점유비 지난해 8%에서 금년 13%까지 상승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의 온라인 유제품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마케팅 리서치 기업인 칸다(Kantar)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유 소매판매가 크게 늘며 주식으로 다시 한 번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온라인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24%의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유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지난해에는 3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8%에 그쳤던 온라인 소매판매 점유비가 금년에는 13%까지 상승했고 온라인 유제품 구매 빈도도 연간 16회에서 21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칸다에 따르면, 할인 쿠폰 발행 등 온라인 판촉활동으로 온라인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식물성 대체우유 제품 확대로 유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영양학적 가치 등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ahdb.org.uk, 8월 27일자 >

[IDF 동향] ‘지속가능한 유제품 공급을 위한 비전 공유’ - 10월 13일 IDF 리더스 포럼 열려

- 낙농산업 직면과제 논의 및 UN FSS 주요 내용 공유 등



오는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IDF(국제낙농연맹) 글로벌 데어리 컨퍼런스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13일에는 데어리 리더스 포럼(Dairy Leaders Panel)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 유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유제품 공급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덴마크 알라푸드, 프랑스 락탈리스, 중국 멩뉴와 미국 낙농가협회의 CEO와 대표가 참석해 향후 세계 낙농 산업은 물론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유제품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며 직면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UN FSS(푸드 시스템 정상회의) TF 위원장인 주디스 브라이언스가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10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3일간 ‘낙농의 기후변화(A Changing Climate for Dairy)’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식단, 식품안전, 가공기술, 정책경제·마케팅 등 낙농산업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출처 : IDF 본부, 8월 30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